

정치

경제

사회

전국

문화/연예

스포츠

국제

칼럼

사람

국내사건

국제사건

참여공간

뉴스홈 > 사회 > 교육/취업/노동

Print Email Print Print Print

고려대, 특허분쟁사건 'Case Study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11년 06월 23일 17시 11분

(아시아뉴스통신=장민서 기자)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섬유센터에서 기업과 법조계, 학계와 정부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하이닉스와 Rambus간 특허분쟁사건의 경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Case Study 세미나'를 개최한다.

센터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특허분쟁에서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인 미국 Rambus사의 DRAM(컴퓨터 메모리 표준기술의 하나) 특허관련 지연·방해 행위에 관한 일련의 소송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는데 이 사건은 소송들은 특허침해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으로 독점금지법 위반 주장이 엇갈려 있다.

제1부에서는 하이닉스반도체 특허팀장으로서 Rambus사 관련 소송을 총지휘하고 있는 민경현 변호사를 초청해 "하이닉스와 Rambus간 특허분쟁사건의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Case Study를 진행한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호진(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과 최요섭(한국외국어대 법학연구소 초빙연구원)이 이 사건의 법률적 의의 및 효력을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선형 ICR 연구교수는 "이 세미나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국제소송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게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고려대, 특허분쟁사건 'Case Study 세미나' 개최 [페이지 ?](#)

아시아뉴스통신 [구독+](#) 조회 3 | 메시지 0